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끝까지 힘내자!

스마트폰 앱을 열었다. 일정 관리를 위해서다. 다소 어지러운 일정에 바쁘게 살아가는 데 미소가 머문다. 예배 준비, 조과 근무, 홍보 준비, 70주년 기념 준비, 현수막 확인, 수업, 중간고사 준비, 신입생 입학설명회 등 다양하다. 교무수첩을 대신하는 것이 스마트폰 앱이다.

항상 지내고 다니던 교무 수첩은 형식상 메모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처럼 사소한 변화에도 '끝까지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메모나 일정 관리를 어디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메모나 일정이 아이들과 공유하는 교육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도 수업을 담당하지도 않는 데, 가끔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가 있다. 이성 문제, 가정문제, 진로문제, 성적문제와 같이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사'를 희망하는 아이가 있다. 그것도 나를 본보기로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종종 찾아온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교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그래. 반가운 이야기네. 선생님 같은 국어교사가 되고 싶네. 더 반가운다. 그럼 00이는 왜, 국어교사가 되길 원하냐?”

대답은 다양하다. '방학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확실해서, 제자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자주 할 수 있어서'처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선이다. 그 많은 대답 중에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요!" 라는 말에는 절로 미소가 머문다.

“포니 싸피엔스” 시대에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한 직업의 하나다. 나름 많은 혜택을 받는 선호

하는 직업의 대표다. 기존 세대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장래희망을 천직으로 알았던 '교사'는 이제 직업이기 전에 '열정'과 '사명'을 요구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나 학교운영자의 비리가 마스크를 통해 전해지면 다리가 풀리는 아찔함을 경험한다.

한 학기를 시작과 끝에서 항상 말없이 아이들과 학교를 지켜내는 이름 없는 '교사'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카테고리에서 교육현장도 모를 적잖아만 있을 수 없다. 디지털 문화에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문화

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교사'도 변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독서와 연수를 통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학부모도 학교공동체도 행복하다"는 본질을 잊지 말자. 왜냐하면, '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스승의 그림자'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선생님을 만난다. 성격도 외모도 생각도 차이를 보이는 선생님과의 교감으로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교사를 따르게 된다. 다양한 한마디의 말이나 공감하는 노래나 행동이 다음 세대를 지켜낼 어느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역할 모형으로 자리 잡는다. 어찌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든든하게 서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내는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끝까지 힘내자!

독자제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미국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프랑스·독일 등은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18년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사망사고 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약 40%(16년 OECD 회원국 평균 19.7%)이고 9월~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 20.3%에서 2018년

23.1%로 2.8%p 증가했다.

따라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여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슬로건으로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신서운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거리 행진하는 '국경절 애도 시위' 행렬



지난 1일(현지시간) 검은색 깃발을 든 반정부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경절 애도 시위'에 참여했던 한 교고생이 경찰이 거리에서 쏜 실탄에 가슴을 맞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시위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탄소산업 우뚝서게 한 도지사의 최근 행보

전북의 탄소산업은 돋보여야 한다. 그에 부응이라도 하듯 송하진 도지사의 최근 행보가 멋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큰 행사를 가진 것이다. 영국의 60대 대학, 72개 기업과 관계를 맺은 게 그것이다. 그리고 영국 국립복합소재 연구소를 방문해 기술개발 협약식을 체결한 것도 전북의 탄소산업 미래를 위해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탄소산업에 관한 한 전북도는 그 어느 광역자치체보다도 먼저 시작했다. 이제 그 역사가 10년을 훌쩍 넘었다.탄소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탄소산업의 수도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왔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근 행보가 돋보이는 것이다.전북도가 지난달 20일에 탄소산업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운 것도 큰 기대의 대상이다. 5년 단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 면면들은 전북 탄소산업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도지사가 영국에서 선진 기술

현장을 방문하는 가운데 여러 대학 여러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전북도는 탄소산업과 관련해 계속 기업을 토해야 한다.다른 광역지자체가 한국 탄소산업의 대표주자가 되려고 욕심을 품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수 년간 경쟁 관계에 있는 경북이 바로 그러하다. 오랜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더 분발해야 한다.전북도가 그동안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기업군 형성에도 마음을 써야겠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미래를 홍보하던 때를 상기해야 한다.기업 240개 유치와 3만5000명의 고용 창출을 말했던 거 말이다.그리고 효성 공장도 그렇다. 2013년에 준공할 때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었다. 그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전북도는 탄소산업이 지역 경제를 힘차게 견인해 백년 먹거리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오랜 관심사 그대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우뚝 섰으면 하는 열원이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도민의 기대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실무 관계자들이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까닭이다. 70만 평의 단지에 55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그렇다. 투자 규모도 보아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발전 가속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그같은 소식은 재반에 정부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을 생 각나게 한다.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거 말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현 과제로 식품클러스터에 전체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중 60%에 해당 하는 90개의 기업을 연내에 유치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 게 온전히 실현됐는지 전북도와 익산시의 보고가 있어야겠다. 어쨌든 식품클러스터의 관계자들은 더욱 힘내야 한다.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의 식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의 식품 산업을 주도 해야 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를 두고 전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도 매우 기분 좋은 현상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발

전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익산시에 주고픈 말은 남아 있다.청사진과 비교하면 아직 발전 속도감이 낮다. 도민이 본래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은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라는 우려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익산시는 농림식품부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앞에서 먼저 분위기를 이끌어야 했다. 여러 번 말했거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발전과 함께 전북의 발전도 약속하고 있다.

도민들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 본래 희망했던 바 그대로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돼 있을 게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명실공히 국가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할 터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지역 공약이 실현되면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겠다. 실력 발휘에 따라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더욱 속도감 있게 발전하리라는 믿음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